

오키나와(沖繩)의 성지순배, '아가리우마이(東御廻り)'

-미네이 구(嶺井區)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 희 영*

(e-mail: khy6191@hanmail.net)

목 차

1. 머리말
 2. 성지순배의 유형
 3. 미네이 구(嶺井區)의 '아가리우마이(東御廻り)' 사례
 4. 맺음말
-

1. 머리말

오키나와(沖繩)에는 '가미우간(神拝)'이라고 하여 조상의 연고지인 성터·묘·샘·우타키(御嶽)¹⁾ 등의 배소(拜所)를 순배(巡拜)²⁾하는 의례적 행사가 있다. 의례가 한 시대 사람들의 관습이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오키나와인들의 가미우간은 그들 문화의 독자적인 면을 설명해주는 의례라고 할 수 있다. '아가리우마이(東御廻り)'는 오키나와본도(沖繩本島)와 그 주변의 이도(離島)에 분포하면서 주로 문중(門中)³⁾단위로 행해지는 가미우간

* 전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일본문화학 전공.

- 1) 오키나와 전 지역에 존재하는 성지(聖地)를 이른다. 대부분은 숲이지만, 바위나 '구바(蒲葵)'라는 야자와 상록수, '가주마루(龍樹)' 나무 등도 있다. 가장 신성한 장소로 여겨지며, 마을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 핵심을 이룬다. 우타키는 촌락 발생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여겨지고 있으며, 그 대부분이 조상이 최초로 살게 된 장소이거나, 혹은 마을을 개척한 조상의 납골장소 근처에 있다.
- 2) 오키나와의 경우, 순례보다 순배라는 용어가 학계에서의 사용빈도가 높아 본고에서도 그에 따라 가미우간을 위해 배소를 도는 행사를 성지순배라 칭하였다. 덧붙여, 명칭과 용어에 한하여 오키나와 고유의 발음을 가능한 한 그대로 표기하고자 하였다.

중 하나로, 9·10월 중의 일요일에 유명 배소에서 곧잘 목격된다.

‘아가리우마이’는 고류큐(古琉球)⁴왕조 시대의 국왕이 친히 지넨(知念)·다마구스쿠(玉城) 등, 오키나와의 창세신 아마미키요(アマミキヨ)⁵가 안주했다는 성지를 순배했던 것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다. 국왕의 성지순배가 사족(士族)층의 문중에 의한 가미우간으로 확산되고, 이윽고 그것이 평민층까지 침투한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그러므로 ‘아가리우마이’의 순로로 되어 있는 성지는 아마미키요 전설 및 류큐의 왕권제사와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오키나와인들은 오키나와의 기원과 함께 류큐왕조의 정통성을 이야기해주는 장소들을 정기적으로 순배하는 것이다. 류큐왕조 당시에 왕부(王府) 중심으로 행해지던 성지순배 관습이 변용된 모습으로나마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전통으로 존속·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은, 순배라는 행위가 현대 오키나와인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민속학의 아버지 야나기타 구니오(柳田國男)가 1921년에 내도(來島)하여 명저 『해남소기(海南小記)』를 세상에 내놓은 이래, 오키나와는 매력 넘치는 ‘민속의 보고(寶庫)’로서 주목을 받아 왔다.

국내에서의 오키나와에 대한 민속학적인 연구는 몇 갈래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제주도와의 연관성 하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를 들 수 있다. 근거리라는 지정학적 요인과 도서지역이라는 자연환경의 유사성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우타키와 유타(ユタ)⁶ 등, 오키나와의 전통적 신앙 측면을 살핀 실증적 논고⁷와 설화문학 관련연구⁸가 다수 있다. 그러나 오키나와의 성지순배를 다

- 3) 오키나와의 부계 출계집단은 ‘문추(門中)’라는 일반적인 용어로 잘 알려져 있으며, 양면적 친척과는 달리 부계의 친족집단은 주로 조상순배의 영역에서 기능하고 있다. ‘문추’에 대해서는 이문웅(2000) 「오키나와 ‘문추(門中)’ 형성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관한 시론」, 『비교문화연구』 6권 2호, 서울대학교비교문화연구소 및 쓰하 다카시(津波高志)(1998) 「沖繩의 門中과 家譜」, 명지대학교개교50주년기념 제1회 충승(오키나와)국제학술회의 『조선왕조와 유구왕조의 역사와 문화 재조명』 한국오키나와학회 등을 참조 바란다.
- 4) 여기에서 말하는 ‘고류큐’라 함은 류큐가 사쓰마 번(薩摩藩)의 침공을 받는 1609년까지를 가리키는 역사개념이다. 기본적으로 11세기 후반 무렵에 시작되는 ‘구스쿠(グスク)·아지(按司)시대’부터 ‘산잔(三山)시대’ ‘제1상(尙)왕통기’ 및 ‘제2상왕통 초기’를 포함한다. 대략 일본의 중세에 해당한다.
- 5) 아마미키요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아마미쿠(阿摩美久)는 오키나와 지역의 신화에 등장하는 창세신이다. 류큐의 기원은 이 아마미키요라는 신이 하늘에서 내려와 섬을 만들고, 나라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데에서 비롯된다.
- 6) 아마미(奄美)·오키나와제도(沖繩諸島)에서 점복을 직업으로 하는 무녀(巫女). 노로(祝女)나 니간(根神) 등의 정식 사제자와는 다른 존재이다.
- 7) 김용의(2004) 「오키나와 다케토미지마(竹富島)지역의 우타키(御嶽)신앙」, 『일본어문학』 제20집, 한국일본어문학회, 표인주(2001) 「沖繩의 御嶽と韓國南道地域の村落共同体信仰の比較考察」, 『韓國と沖繩の社會と文化』 第一書房 등이 있다.
- 8) 김용의(2010) 「『유로설전』에 전하는 오키나와의 비주르 신앙」, 『일본어문학』 47집, 한국일본어문학회, 정진희(2011) 「오키나와 거인 전승의 설화적 위상과 성격」, 『구비문학연구』 32집, 최인학(2001)

른 국내연구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오키나와 현지에서도 야나기타 구니오와 오리구치 시노부(折口信夫)의 뒤를 이어 이하 후유(伊波普猷)를 비롯한 수많은 민속학자가 배출되었다. 일본에서 오키나와의 성지순배 관련 연구는 특히 이와 같은 오키나와 출신 학자들의 업적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 중 현저한 성과를 낸 이는 와쿠가미 모토오(湧上元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오키나와민속학회고문이었던 그는 1994년부터 3년간 오키나와현교육위원회에서 주도한 ‘아가리우마이등관련배소종합조사(東御廻り等關連拝所總合調査)’ 사업에 촉탁으로 참여하였다. 같은 촉탁 신분의 연구자들과 함께 ‘아가리우마이’를 비롯한 성지순배의 배소 및 유래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작성한 두 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와쿠가미는 성지순배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저서라고 할 수 있는 『오키나와의 성지(沖繩の聖地)』와 『오키나와민속문화론 제사·우타키·신앙(沖繩民俗文化論 祭祀·御嶽·信仰)』 등을 펴냈다. 그러나 이것들은 문중단위로 이루어지는 성지순배의 현상을 파악하는 데에 중점이 놓여 있다. ‘아가리우마이’는 문중단위뿐 아니라 마을단위로도 행해지며, 심지어 일개인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다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구가 더해져야만 ‘아가리우마이’의 전체상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먼저, 다양한 성지순배의 유형을 분류하여 그 안에서 ‘아가리우마이’의 자리매김을 하고, 한편으로는 난조 시(南城市) 오자토(大里)지구 미네이 구(嶺井區)⁹⁾의 현지조사라는 실증적인 방법으로 마을단위의 ‘아가리우마이’에 대한 고찰을 진행하고자 한다.¹⁰⁾ 현지조사 지역을 미네이로 선정한 이유는 이 지역이 ‘아가리우마이’의 순로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마을단위의 ‘아가리우마이’는 그 사례가 매우 드물어 여러 지역 중에서 취사선택할 수 없다는 상황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문 마을단위의 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아가리우마이’의 전체상과 본질을 고찰하는 데에 있어서 유의미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통해 오키나와인의 전통적 신앙의 한 측면을 구명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일본문화의 다양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沖繩・韓國における説話類型の比較」, 『韓國と沖繩の社會と文化』第一書房 등이 있다.

9) 미네이는 현재의 행정단위로 구(區)에 해당되지만, 지역주민들은 여전히 옛 행정단위인 아자(字) 공동체로 생활하고 있다.

10) 필자의 오키나와 현지조사는 세 차례 이루어졌다. 2010년 2월 2일부터 10일까지의 1차 조사에서는 ‘신들의 섬’이라 부르는 구다카지마(久高島)와 ‘아가리우마이’의 성지 중 그 일부를 답사하였다. 2011년 9월 23일부터 28일까지의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서 미처 둘러보지 못한 ‘아가리우마이’의 성지들을 답사하고, ‘가쿠리우시미(隠御清明)’의 참관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2011년 10월 19일부터 25일까지의 3차 조사에서는 미네이의 배소 조사와 ‘아가리우마이’의 동행조사를 하였다. 미네이의 ‘아가리우마이’는 2011년의 3차 조사기간 중 10월 23일에 이루어졌다.

2. 성지순배의 유형

오키나와에서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은 거의가 자연물이기 때문에 가미우간을 위해서는 돌아다녀야 할 필요가 있다. 가미우간을 위한 성지순배는 순배의 공개성 정도와 참여범위를 기준으로 그 유형을 나눌 수 있다. 비교적 공개적인 성지순배로는 ‘아가리우마이’와 ‘나치진누부이(今歸仁上리)’를 비롯하여, ‘우아라우리(御新下리)’, ‘스이우가미(首里拜み)’ 또는 ‘슈리메구리(首里巡리)’, ‘시무카타마이(下方廻리)’ 등이 있다.

오늘날 ‘아가리우마이’는 문중행사로서 조상공양을 위한 성지순배처럼 생각되고 있지만, 『류큐국유래기(琉球國由來記)』¹¹⁾의 권1 왕성지공사(王城之公事)와 『류큐국구기(琉球國舊記)』¹²⁾의 권3 공사(公事) 및 부권(附券)¹¹⁾의 기록에 따르면 원래 류큐국왕과 기코에오기미(聞得大君)¹³⁾의 ‘아가리카타(東方)’ 순례였다. 아가리카타란 왕부가 소재한 슈리(首里)에서 동쪽 방향에 있는 오자토마기리(大里間切)¹⁴⁾, 사시키마기리(佐敷間切), 지넨마기리(知念間切), 다마구스쿠마기리(玉城間切) 지역을 일컫는 말이었다.

난조 시 지넨 지구의 아자마(安座眞)에 거주하는 나카무라 마사요시(仲村正義, 남, 68세) 씨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에서 가까운 해변으로 나간다. 그는 그 곳에서 같은 목적으로 온 사람들과 함께 바다 저편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참배한 후 하루의 일과를 시작한다.

상기의 일례처럼 예로부터 오키나와인들의 신앙생활에서는 자연숭배 중, 특히 태양이 뜨는 동쪽에 대한 숭배가 큰 부분을 차지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와쿠가미 모토오(湧上元雄)에 의하면 동남아시아의 산지민에 ‘아침의 태양은

11) 류큐왕국에 관한 최고(最古)의 체계적인 지지(地誌)자료로서, 1713년에 국왕 쇼케이(尙敬)가 명을 내려 전 21권으로 편찬된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왕성인 슈리 왕부(首里王府)는 물론, 각 섬과 마을에 전해지는 제사나 행사, 관직, 제사(諸事)의 유래, 각 지방에 존재하는 우타키의 유래와 신명(神名) 및 옛 전승 등, 실로 다양하게 기술되어 있다.

12) 『류큐국유래기』에 약간 정정을 가하여 1731년에 왕부에서 한문으로 다시 편찬한 것이 『류큐국구기』이다. 사서 『구양(球陽)』의 편자인 데이 헤이테쓰(鄭秉哲)가 찬수사(纂修司)를 담당하였으며, 본권 9권과 부권 11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13) 최고위의 신녀를 이른다. 아마미키요는 바람으로 인해 회임하여 3남 2녀를 낳았다. 그 장남이 국왕의 시작이며, 이를 천손씨(天孫氏)라고 했다. 차남은 아지의 기원으로 각지의 성주·귀족이 되었고, 삼남이 하쿠쇼(百姓)의 기원이 되었다. 한편, 장녀는 전국의 노로들을 통솔하는 기코에오기미의 시조가 되었으며, 차녀는 노로의 기원이 되었다.

14) 오키나와의 옛 행정구역을 나타내는 말로, ‘구획을 나눈다’는 뜻이다. 류큐는 중앙의 ‘마치카타(町方)’와 지방인 ‘마기리’·‘시마(島)’로 구별되고 있었으며, ‘마치카타’는 슈리(首里), 나하(那覇), 도마리무라(泊村), 구메무라(久米村) 등 네 곳이었다. ‘마치카타’ 이외는 지방이며, 문화적·지역적인 덩어리를 갖는 십 수 곳의 마을을 구획하여 구별 짓는 행정단위를 ‘마기리’, 구획 지을 수 없는 작은 섬 등을 ‘시마’라고 불렀다.

태양의 동굴에서 나와 태양의 길로 올라 낮에는 천정(天頂)에 이르고, 오후에는 태양의 길을 내려와 서쪽 동굴로 들어간다. 그리고 대지 아래의 태양의 길을 통하여 다음날 아침 다시 동쪽 태양의 동굴을 나와 떠오른다’는 우주관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류큐열도(琉球列島)의 섬들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 조건 때문에 오키나와에서는 매일 땅속에서 올라오는 태양이 바다 저편 동쪽 해상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가져오고, 어느 샌가 바다 저편의 낙토라는 관념이 생겨났다. 고대 오키나와인의 마음에 그려진 이 해상낙토 니라이·가나이(ニライ・カナイ)에는 태양의 동굴이 있으며, 오키나와인들은 불도 물도 벼와 보리도 모두 이곳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믿었다고 한다.¹⁵⁾

아라키 히로유키(荒木博之)도 고대의 일본인 및 오키나와인들이 도쿄요노쿠니(常世國)나 니라이카나이가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 해상 저편에 존재함을 믿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 예로, 일본인이 성지라고 생각해온 휴가(日向), 구마노(熊野), 이세(伊勢) 등이 모두 동쪽 바다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지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들고 있다.

류큐왕국의 왕성인 슈리성(首里城)도 원래 동방을 정위치로 하는 플랜으로 만들어졌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슈리성은 행정의 중축일뿐 아니라, 동시에 성스러운 제사가 행해지는 공간이기도 했다. 『류큐국유래기』에 따르면 슈리성 왕전(王殿)에서 국왕이 매일 아침 동쪽을 향해 향을 피우며 배례했다고 되어 있다. 이를 다니가와 겐이치(谷川健一)는 류큐 전역에 보이는, 집 부지의 동쪽 배소를 참배하는 습속이 국가의례화 된 것으로 본다.¹⁶⁾

고래로 오키나와인들은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 해상 저편에 자연의 생명력, 모든 영력의 근원이 있다고 믿으며 숭배해 왔다. 그리고 동쪽을 숭배하는 습속이 ‘아가리우마이’라는 성지순배로까지 연결되는 것이다.

그리고 아가리카타 지역에는 류큐국 개벽신 아마미키요가 강림했다는 섬과 거주했다는 지역이 있다.

전설에 따르면 아마미키요가 지낸 촌(知念村) 구다카지마(久高島)에 강림하여 다마구스쿠 촌(玉城村) 하쿠나(百名)의 해안에 오키나와본도(沖繩本島)에의 첫걸음을 내딛은 곳이 야하라즈카사(ヤハラ司)였다. 그리고 아마미키요는 야하라즈카사에서 가까운 동굴에 임시로 거처를 마련했다. 그 장소는 하마가우타키(浜川御嶽)였다. 그 후 아마미키요는 류큐의 국토창세를 위해 다시 육지로 옮겨 살기로 하고 다마구스쿠 촌 나칸다카리(仲村渠)에 오키나와 최고(最古)의 성 민툰구스쿠(ミントゥン城)를 쌓았다.

15) 湧上元雄・大城秀子(2000) 『沖繩民俗文化論 祭祀・御嶽・信仰』 榕樹書林, p.463

16) 小島瓊禮・谷川健一 編(2000) 『首里城-王權を讃える神々』 『日本の神々』 白水社, p.34

또 아가리카타에는 곡물발상의 전설도 전승되고 있다. 오키나와의 도작발상지는 다마구스쿠 촌 하쿠나의 우킨쥬·하인쥬(受水·走水) 하류의 미후다(御穂田)이며, 보리와 조, 사탕수수과 콩 등의 오곡이 처음으로 재배된 것도 지넨 촌의 구다카지마라고 한다. 슈리왕부에서는 그와 같은 신화를 중시하여 오곡발상지인 아가리카타에서 류큐국 개벽신 아마미키요에게 그 해의 첫 이삭을 올리는 제례를 행했다. 이것이 ‘아가리우마이’의 시작이었다. 이 제사는 류큐왕국의 번영과 오곡풍요를 기원하는 왕부의 가장 중요한 행사로서 행해졌다.¹⁷⁾ 류큐국왕과 기코에오기미·신녀(神女)·신하들이 격년으로 지넨·다마구스쿠의 유서 깊은 곳을 순배한 것으로부터 일반에 확산되어, 현재는 류큐민족 시조의 도래지로서, 또 오곡발상지로서 순배되고 있는 것이다.

‘아가리우마이’는 순배 주기를 3년, 5년, 7년, 13년 등과 같이 홀수 해로 하고 있으며, 매년 행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 날씨가 좋은 구력 8월부터 10월경의 일요일에 행한다. 1997년에 사시키 정, 지넨 촌, 다마구스쿠 촌의 관청에서 공동으로 발행한 팸플릿에는 수누히얀우타키(園比屋武御嶽), 우둔야마(御殿山), 요나바루에카(与那原親川), 사시키바덴우타키(佐敷馬天御嶽), 사시키구스쿠(佐敷グスク), 데다우카(テダ御川), 세화우타키(齋場御嶽), 지넨구스쿠(知念グスク), 지넨우카(知念御川), 우킨쥬·하인쥬, 야하라즈카사, 하마가우타키, 민툰구스쿠, 다마구스쿠 성터 등 14곳이 대표적인 성지로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 순배코스는 촌락이나 문중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보인다.¹⁸⁾

‘나치진누부이’는 ‘아가리우마이’와 쌍벽을 이루는 성지순배이다. ‘아가리우마이’가 슈리 성을 중심으로 했던 주잔(中山)¹⁹⁾의 세력과 관련이 있는 성지를 순배하는 것에 비해, ‘나치진누부이’는 호쿠잔(北山) 세력과 관련이 있다. 제2상(尙)씨²⁰⁾ 왕통의 초대 왕 쇼엔(尙圓)의 연고지인 오키미 촌(大宜味村) 쓰하(津波)의 누루둔치(ノロ殿内)와 구니가미 촌(國頭村) 오쿠마(奥間)의 대장간 등, 나키진 마기리(今歸仁間切) 나키진 촌(今歸仁村) 소재의 나키진구스쿠를 둘러싼 성지들을 순배한다. 슈리성에 가는 것을 ‘누부이(上)’라고 했던 것에서 본래는 나키진구스쿠에 가는 일을 가리켰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²¹⁾

‘우아라우리’는 지넨 마기리의 총 지토(地頭)²²⁾인 기코에오기미가 자신의 영

17) 長田昌明(2002) 『神々の伝説』 わらべ書房. pp.12-14

18) 각 문중의 순배코스는 沖繩縣教育廳文化課 編(1997) 『東御廻り等關連拝所總合調査Ⅱ』 沖繩縣教育委員會. pp.3-67에 상세하다.

19) 1429년, 주잔(中山)의 제3대 왕 쇼하시(尙巴志)가 호쿠잔(北山), 난잔(南山)을 통합함으로써 ‘산잔(三山)시대’가 막을 내리고 비교적 중앙집권적인 류큐왕국이 성립되었다.

20) 쇼시소(尙思紹)-쇼하시 계열을 제1상씨 왕통, 그리고 쇼쇼쿠(尙稷)-쇼엔 계열을 제2상씨 왕통으로 분류한다.

21) 谷川健一 編(2000) 『日本の神々』 白水社. pp.317-333

지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기도 하며, 지넨 마기리의 노로(祝女)²³⁾가 기코에오기미에게 새로이 신호(神號)를 바치는 즉위식을 말하기도 한다. 류큐 왕국 최대의 의례라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와쿠가미 모토오는 국왕의 오나리신(おなり神)²⁴⁾인 기코에오기미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왕국의 안녕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사고방식이 근거에 흐르고 있다고 본다.²⁵⁾

‘아가리우마이’, ‘나치진누부이’, ‘우아라우이’와 같은 성지순배가 비교적 공개적임에 비해 ‘가쿠리우시미(隱御清明)’는 비공개적 성지순배라고 할 수 있다. ‘가쿠리우시미’는 현지 오키나와인들에게 있어서도 낯선 명칭이다. 한자 표기에서 알 수 있듯이 그것은 오랜 기간 동안 은밀하게 행해져 왔기 때문이다. 시미(清明)²⁶⁾는 원래 4월 중에 행해지지만, 히라타(平田) 문중의 가쿠리우시미는 매년 추분(9월 23일)에 사시키구스쿠를 중심으로 행해진다.

히라타 문중의 우마린가(生魂)²⁷⁾ 미야기 하루코(宮城春子, 여, 75세) 씨의 설명에 따르면, 오키나와에서 최초의 통일왕조 류큐국을 세운 쇼하시(尙巴志)는 자신이 왕이 되기 전에 남동생을 오자토의 전쟁터로 내보냈다. 동생이 화살을 맞고 죽게 된 순간, 쉽게 숨이 멎지 않아서 쇼하시가 자신의 장남을 동생의 후계자로 삼아주겠다고 말했더니 동생은 그제야 숨을 거두었다. 이가 히라타 문중의 시조라고 일컬어지며, 이름을 히라타 우후야(平田大比屋)라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제1상씨 대의 일이므로 제2상씨 대에는 그 후손들이 신변의 위협을 우려하여 자신들이 공양하는 것을 비밀로 해왔으며, 최근까지도 히간사이(彼岸祭)²⁸⁾라고 속여 왔다고 한다. 이 점이 ‘가쿠리(隠れ)’라는 용어를 순배의 명칭에 사용하게 된 연유이다. 그 어디에도 이러한 과정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22) 장원을 관리하고, 조세(租稅)의 징수, 치안 유지 등을 맡던 직명이다.

23) 누루(ヌル)라고도 발음되는 노로는 오키나와 현과 가고시마 현(鹿兒島縣) 아마미군도(奄美群島)에 있어서의 여사제를 말하며, 민간의 무녀인 유타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지역의 제사를 관장하고 유타키를 관리한다.

24) 여성의 영력이 남자형제에게 강력히 작용하여 수호신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믿어진 것이 오나리 신앙이다. 이하 후유(伊波普猷)의 지적에 따르면 이 개념은 남녀 사이의 모든 관계성을 내포한다. 즉 남자는 세계를 지배하고, 여성은 남성을 수호하며 신을 모시는 신녀로 자리매김이 된다. 이 사실이 류큐왕국에서의 제정일치 체제의 기반을 형성했다고 여겨지고 있다.

25) 湧上元雄・大城秀子(1997) 『沖繩の聖地』 むぎ社. p.134

26) 중국에서 전해진 조상의 혼제(魂祭)이다. 그러나 오키나와의 시미는 조상제사의 이름을 빈 문중 총회의 성격이 짙다는 窪徳忠(1989) 『沖繩の民間信仰：中國文化からみた』 ひるぎ社 p.360의 견해가 있다.

27) ‘가쿠리우시미’ 행사를 주관하는 자를 우마린가라고 한다. 애초부터 조상을 모셔야 하는 역할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이다. 히라타 문중에서는 현재의 우마린가 미야기 씨가 연로하여 2, 3년 이내에 우마린가가 교체될 예정이다. 현재 문중 본가(本家)의 여성 중 여섯 명이 지원을 한 상태이다.

28) 히간에(彼岸會)를 말한다. 봄가을 2회, 히간(彼岸) 7일 동안 행해지는 법회(法會)이다. 사원에 참배하고, 성묘 등의 불사(佛事)를 한다.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야기 씨는 자신이 소장한 계보(系譜)의 존재 자체가 그 증거이며 역사학계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야기 씨는 추분 1주일 전부터 행사 준비를 한다. 연락은 따로 하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참석 인원을 정확하게 예상할 수는 없지만, 예년의 기억을 되살려 행사 당일에 문중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전문점에 주문제작 한다. 옛날에는 돼지 한 마리를 통째로 구워 슈리 성에서부터 사시키구스쿠까지 여러 명이 운반을 했다고 한다.

2011년 9월 23일, 미야기 씨는 아침 일찍부터 사시키구스쿠의 쓰키시로미야(月代宮)의 문을 개방하였다. 이 쓰키시로미야의 문은 평소에는 닫혀 있다가 일 년에 딱 한 번, 추분에 공개된다. 쓰키시로노미야는 쇼시쇼(尙思紹)와 오키나와를 통일한 쇼하시의 거성이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1926년 오키나와신사(沖繩神社)가 생겼을 때 제2상씨는 제신이 되었지만, 제1상씨는 제외되었기 때문에 1938년의 쇼하시오백년제(尙巴志五百年祭)를 계기로 쓰키시로노미야를 세웠다고 한다. 제신은 사메가와우후누시(佐銘川大主), 쇼시쇼, 쇼하시, 쇼추(尙忠), 쇼시타쓰(尙思達), 쇼킨푸쿠(尙金福), 쇼타이큐(尙泰久), 쇼토쿠(尙德)이다. 쓰키시로는 제1상씨의 수호신이라고 한다.²⁹⁾

옛날에는 한꺼번에 수백 명이 운집했다고 하지만, 현재는 나하(那覇)를 비롯한 각 지역에서 수 명 또는 수십 명의 히라타 문중사람들이 수누히안우타키와 요나바루 에카를 거쳐 사시키구스쿠를 순배한다. 문중사람들은 준비해 온 음식 등을 위패 앞 제단에 올리고 향을 피웠다. 지전(紙錢)은 반드시 올리도록 되어 있으며, 배례를 마치고 소지(燒紙)를 하였다. 그 후 다 함께 음복을 하였다. 그렇게 몇 팀이 왔다 가는 동안, 미야기 씨는 그들의 배례과정을 돕고 그들이 먹을 음식을 내놓았다. 문중사람들은 위패를 봉안한 쓰키시로미야에만 참배를 하고 돌아갔다. 문중사람들의 참배가 대충 다 끝난 후에 미야기 씨는 쓰키시로미야 뒤쪽에 있는 사시키위구스쿠(佐敷上グスク)의 배소 두 곳에 히라타 문중의 대표자 자격으로 혼자 참배를 하였다.

참배를 끝낸 히라타 문중사람들은 사시키구스쿠 입구의 잔디밭에서 빙 둘러앉아 음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옛날에는 참배 후 산신(三線)³⁰⁾ 등을 켜며 춤추고 노래했다고 한다. 미야기 씨는 다른 문중에도 가쿠리우시미의 예가 있지만, 최근의 젊은이들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행하지 않는 까닭에 히라타 문중의 행사규모가 가장 큰 것이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한편, 성지순배는 참여범위에 따라 크게 마을단위, 문중단위, 일개인단위의

29) 崎原恒新(1989)『沖繩の年中行事』沖繩出版. p.198

30) 뱀 가죽으로 만든 오키나와 지역의 민속 악기이다.

성지순배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그 사례가 비록 드물기는 하지만, 현지조사를 한 미네이의 경우처럼 같은 생활권 내에서 문중과는 관계없이 각 가구별로 참여하는 마을단위의 성지순배가 있다. 사시키 지구의 사시키 마을도 2011년, 마이크로버스 2대를 동원하여 마을단위의 ‘아가리우마이’를 미네이와 같은 10월 23일에 행하였다.

문중단위의 성지순배는 류큐왕부의 성지순배를 모방한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유교적 제사 의례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왕부의 성지순배는 주로 농경과 관련이 깊었다. 한편, 사족 층 문중의 성지순배는 주잔, 난잔, 호쿠잔 등 산잔 유신(遺臣)들의 조상연고지를 참배하는 조상제사에서 시작되었다고 간주되며, 특히 ‘아가리우마이’와 ‘나치진누부이’는 오키나와의 문중이라면 반드시 배례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마을이나 문중단위로서가 아닌, 일개인단위의 성지순배도 행해지고 있다. 히라타 문중의 우마린가인 미야기 하루코 씨는 매년 구력 12월에, 순배일을 따로 정해 놓지는 않고 적당한 길일을 골라 1주일씩 두 차례의 ‘아가리우마이’를 혼자서 행한다. 미야기 씨는 가족과 자신을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의 기원을 대신 해주는 나카무치(仲持)라는 역할로서 총 14곳의 성지를 순배하며 신과 조상에게 감사 인사를 올린다. 미야기 씨는 ‘아가리우마이’를 통하여 자연과 조상으로부터 새로운 기운을 받는다고 믿는다.

3. 미네이 구의 ‘아가리우마이’ 사례

‘아가리우마이’의 순배지가 집중되어 있는 다마구스쿠, 지넨, 사시키, 오자토, 이 네 촌(村)이 병합되며 2006년 총인구 4만 명 남짓의 난조 시가 탄생했다. 그러나 행정 편의상 여전히 다마구스쿠 지구, 사시키 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칭하고 있다. 전업농가의 비율이 높은 미네이는 오자토 지구의 최북단, 요나바루(與那原)와 인접하여 위치하며, 인구 574명의 중간 규모 구(區)이다.

『오자토촌사』에 의하면 나카구스쿠 촌(中城村) 오쿠마(奥間) 나칸다카리 가(仲村渠家)에서 온 나카바루시(仲原子)가 미네이 지역에 마을을 세웠다고 하며, 메이지(明治) 시대에는 마을 이름을 나카바루(仲原)라고 했다. 옛날에는 마을의 동쪽 구릉에 소재한 우후야마(大山) 산 정상에 마을이 있었으나, 겨울의 북풍을 피해 산 아래쪽으로 이동을 했다고 하며, 산 정상을 현재는 후루지마(古島)라고 부른다.³¹⁾ 이 후루지마가 미네이 지역의 대표적인 배소로 되어 있

31) 大里村史編集委員會(1982) 『大里村史 通史編』 大里村役場, pp.559-563

으며, 이 외에 니야(根屋), 나치진둔카(今歸仁殿井), 윤자가(ユンジャガ-), 구시누카(クシヌカ-), 구무이(クムイ), 가쵸(前ノ当), 무이누우간(森の御願), 고묘(古墓) 등의 배소가 있다.³²⁾

마을회관 역할을 하는 ‘농촌부인의 집(農村婦人の家)’³³⁾ 부지 내 뒤쪽의 한 구석에, 1988년에 수리를 했다는 니야가 소재한다. 니야는 전통적인 마을에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는 배례 공간이다. 미네이에서는 매월 1일과 15일, 3월 15일의 ‘웨웨(お祝い)’, ‘아미시우간(アミシ-の御願)’, 12월 24일의 ‘우간부투치(御願大餅)’ 때에 니야에서 향을 피우며 구장 등이 배례를 하도록 정해져있다. 미네이에서 민속행사 등과 관련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공간이 니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표는 2011년도 4월부터의 미네이 구 사업계획서를 정리한 것이다.

<표1> 미네이 구의 2011년도 사업계획서

연월일	요일	구력	제사(祭事)
매월 1일, 15일			니야(根屋)에 향 공양
2011/04/06	수		가미시미(神清明)
04/08	금		정례 평의원회
06/05	일		제조작업
06/16	목	05/15	5월우마치(御祭)
06/30	목	05/29	무이누우간(森の御願)
07/15	금	06/15	6월우마치
07/26	화	06/26	아미시우간(アミシ-の御願)
07/21	일		줄다리기
08/27	토		노료마쓰리(納涼まつり)
09/06	화	08/09	시마크사라사(シマクサラサ)
09/07	수	08/10	나치진둔우간(今歸仁殿拝み)
09/25	일		상반기총회
10/05	목	09/09	기쿠자케(菊酒)
10/16	일		아가리우마이
11/20	일		스포츠대회(그랜드골프)
12/18			총회 및 제조작업
2012/01/02	월		하쓰우간(初拝み)
01/07	토		신년회
01/17	화	12/24	우간부투치(御願大餅)
03/25	일		2011년도결산총회 및 제조작업

32) 沖繩縣大里村教育委員會編(2005)『大里村の民俗文化財』沖繩縣大里村教育委員會. pp.9-11

33) ‘농촌부인의 집’에 주로 모이는 연로한 여성들이 자신들의 기억에 의거하여 배소의 위치와 유래 등에 관한 정보를 시교육위원회의 담당조사원들과 필자에게 제공해주었다.

이 계획서에 따르면 미네이 구의 사업은 민속행사의 비율이 단연 높다. 미네이의 2011년도 예산비를 보면 마을의 사업비 항목으로 책정된 1,151,000엔(円) 중 민속행사비를 300,000엔으로 예산하고 있다. 행사에 드는 경비는 매월 각 세대로부터 징수하는 아자비(字費) 중에서 충당하고 있다.³⁴⁾ 미네이에 있어서 민속행사의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다.

미네이에서는 매년 ‘가미시미’, ‘5월우마치’, ‘무이누우간’, ‘6월우마치’, ‘아미시우간’, ‘노료마쓰리’, ‘시마쿠사라사’, ‘기쿠자케’, ‘하쓰우간(初拝み)’, ‘우간부투치’ 때에 성지순배를 한다. ‘나카구스쿠마이(中城廻り)’와 ‘아가리우마이’는 격년제로 행하며, 7년에 한 번씩 ‘나치진누부이’를 행한다. ‘아가리우마이’와 ‘나카구스쿠마이’, 그리고 ‘나치진누부이’의 행사는 그 일자가 정해져 있지 않다.

미네이의 ‘아가리우마이’는 사전 협의과정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매월 8일에 열리는 정례 평의원회에서 행사일과 제반 사항을 협의한다. 2011년도의 ‘아가리우마이’는 처음에 10월 16일로 예정되었지만, 초등학교 운동회와 겹쳐서 10월 23일로 연기되었다.

행사일이 정해지면 매월 구장이 발행하는 「미네이다요리(嶺井だより)」라는 소식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2011년 10월 호의 소식지에는 아가리우마이 행사가 있음을 알리면서 오전 9시에 사무소 앞에서 집결하여 출발할 예정이며, 정원이 29명으로 제한되므로 신청을 서두르라는 내용이 실려 있다. 지난 해, 2010년도에 행해진 ‘나카구스쿠마이’에는 남자 6명, 여자 12명, 합계 18명이 참가했다고 한다. 올해의 ‘아가리우마이’ 역시 각 세대별로 대표자 한 명씩은 반드시 나와 달라는 구장의 적극 권유에도 불구하고, 총 18명밖에 참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참가자의 남녀 성비는 작년의 ‘나카구스쿠마이’에 비해 균형을 이루고 있다.

다음의 <표2>는 조사를 위한 시교육위원회 직원들을 제외한 2011년도 ‘아가리우마이’ 주민참가자들의 명단이다.

<표2> 2011년도 미네이 ‘아가리우마이’의 참가자 명단

(문중란에서 ‘X’표기는 문중구성원이 아님을 나타냄)

연번	성명	연령	성별	문중	비고
1	城間正義	84	남	伊元	성지협의 우선순위
2	新里前介	83	남	新里	성지협의 우선순위

34) 미네이에서는 구(區) 규약에 따라 아자비를 징수하고 있으며, 각 세대별로 매월 1,000엔씩, 학생을 제외한 20세에서 71세까지의 세대구성원 당 400엔씩을 징수한다. 그리고 ‘아가리우마이’ 등과 같은 행사에 드는 비용 충당을 위해 아자비 중 매월 3만 엔을 적립해 둔다.

3	新垣伸子	80	여	東り	
4	城間聰代	미상	여	城間	宗家
5	城間ワル子	77	여	城間小	
6	奥間文子	75	여	奥間	
7	新垣秀雄	70	남	新垣	
8	城間キヨ	70	여	城間	
9	上江洲正一	69	남	東り	
10	城間清	65	남	城間	
11	上江洲美枝子	64	여	東り	
12	新垣光雄	63	남	東り	
13	玉城善男	63	남	×	구장
14	城間愛子	61	여	×	서기
15	奥濱	58	여	×	
16	新垣聰	51	남	東り	
17	城間朝美	45	여	×	
18	미상		남		부구장

이를 보면 참가자는, 세 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60대 이상의 고령층에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미네이 뿐 아니라 오키나와 전역에서 줄다리기나 에이사(エイサ-)³⁵⁾에 젊은 층의 참가가 늘어나는 경향이 보이지만, ‘아가리우마이’는 젊은 층에 대한 흡인력이 약한 듯하다. 2011년도 9월, 10월 중에 행해진 수 건의 ‘아가리우마이’를 필자가 실제로 참관한 바로도, 젊은 연령대의 참가자는 그 비율이 매우 낮았다. 옛날에는 순배나 우간(御願)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드문 기회였기 때문에 모두가 고대하였고, 그런 기억을 가진 고령 층 사람들이 순배에 참가하는 경향이 크다는 주민의 증언도 있었다.

‘아가리우마이’ 때에 배소에 올릴 흑향(黑香) 12묶음과 빈시(瓶水)³⁶⁾, 쌀, 술, 찬합 등의 공물은 구장이 준비하며, 위로회를 위한 음식도 미리 주문해 둔다. 곤펜(コンペン)³⁷⁾ 등도 기수로 준비를 한다.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은 시청에 신청을 하여 마이크로버스를 이용한다. 난조 시에서는 연1회에 한하여 마을단 위나 문중단위로 마이크로버스 1대를 무상으로 대여해주고 있으며, 반납할 때 연료를 가득 채워주는 조건이 붙는다.

참가자의 일원이며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이기도 한 시로마 세이기(城間正義, 남, 84세) 씨가 행사 전에 제보한 아가리우마이의 배소는 모두 17개소로, 다음의 <표3>과 같다.

35) 오키나와제도(沖縄諸島)의 전통적인 무용으로, 일본 본토의 본오도리(盆踊り) 같은 것이다.

36) 술 등을 넣는 구리제 그릇이다.

37) 오키나와의 과자이다. 光餅, 薰餅라고도 표기한다.

<표3> 미네이 ‘아가리우마이’의 배소

(연번은 순배 순에 따른 것임)

연번	배소명칭
1	오자토 지구 하에바루(南風原)의 데다가(テダ川)
2	하에바루의 진수(鎭守) 우타키인 나나스쿠누우타키(食榮森御嶽) 옆에 소재한 가(井川)
3	나나스쿠누우타키 하측에 소재한 기아스우카(きあす御川)
4	미카즈키가(ミカヅキガ)
5	니시하라 구(西原區)의 지친가(チチンガ-)
6	지넨(知念) 지구 지나 구(知名區)의 데다우카(テダ御川)
7	지넨 지구 지나우카(知名御川)
8·9·10	세화우카(齊場御川): 3개소
11	지넨 지구 지넨우후카(知念大川)
12	다마구스쿠 지구 나칸다카리히자(仲村渠樋井)
13	하쿠나(百名)의 우킨쥬·하인쥬(受水·走水)
14·15	다마구스쿠둔치(玉城殿内): 2개소
16	다마구스쿠 지구 민톤구스쿠(ミントウングスク)
17	구시가미(具志頭) 아사토(安里)의 기자카(慶座井戸)

미네이의 ‘아가리우마이’는 이를 기본으로 행해지지만, 실제 순서는 약간씩 달랐다.

10월 23일 일요일, 참가자들은 특별한 제약 없이, 다들 간편한 복장으로 집결하였다. 종래는 감색 바탕의 옷에, 열대성 상록 교목인 아단(阿檀)잎으로 만든 조리(草履)를 신고, 씻은 쌀 및 술을 담은 빈시와 음식을 담은 찬합, 향 등을 휴대했다고 한다. 부구장이 운전을 하여 참가자들은 9시 02분에 ‘부인의 집’을 출발하였다. 예전에는 출발 전에 니야에 먼저 배례를 하고, ‘아가리우마이’를 끝내고 돌아와서도 니야를 참배했지만, 현재는 행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전에는 하에바루의 이누카(イヌカ-), 니시하라에 가는 도중에 있는 이히자(イヒジヤ-樋井), 미차히자(ミチャ樋井)도 참배했다는 증언이 있었다.

다음의 <표4>는 2011년도 미네이 ‘아가리우마이’에서 실제 순배를 한 배소를 나타낸 것이다.

<표4> 2011년도 미네이 ‘아가리우마이’의 배소

(연번은 순배 순에 따른 것임)

연번	배소명칭
1	오자토 지구 하에바루의 데다가
2	나나스쿠누우타키 옆에 소재한 가

3	나나스쿠누우타키 하측에 소재한 기아스우카
4	상(上) 하에바루의 가미야(神屋)
5	미카즈키가
6	니시하라 구의 지친가
7	지넨 지구 데다우카
8	지넨 지구 지나우카
9·10·11	지넨 지구 구데켄(久手堅)의 세화우타키 내 구다카지 마을 향한 요배소 산구이(三庫理) 등 3개소
12	지넨 지구 지넨우후카
13	다마구스쿠 지구 민툰구스쿠
14·15	다마구스쿠 내 2개소
16	하쿠나의 우킨쥬·하인쥬
17	다마구스쿠 지구 나칸다카리히자
18	다마구스쿠의 가미야
19	구시가미 아사토의 기자카

지나 구 데다우카에 도착했을 때, 니시하라 구 우라소에(浦添)에서 온 우후구스쿠(大城) 문중의 30여 명과, 나하에서 온 요기(与儀) 문중의 10여 명도 참배하러 와 있었다. ‘아가리우마이’의 순로가 비슷한 때문인지 우후구스쿠, 요기 문중과는 이후 지나우카, 우킨쥬·하인쥬 등 다른 성지에서도 다시 만나게 되었다.

‘아가리우마이’를 끝낸 후, 이토만시(糸満市) 마부니(摩文仁)에 위치한 평화기념공원을 찾았다. 기념공원의 잔디밭에서 각자 편한 자세로 앉아 함께 곤편으로 ‘구산테(クサンテ)’를 하였다. 이는 한국의 음복과 비슷한 것으로, 순배 때에 배소에 올렸던 공양물을 참석했던 사람들이 모두 나누어 먹는 일을 말한다. 이 공원은 오키나와전(戰) 당시 오키나와 방어선을 담당하던 일본군이 미군의 상륙작전에 밀려 마지막으로 쫓겨 온 곳이다. 당시의 희생자들을 위령하는 뜻에서 들르는 듯하다. 돌아오는 길 도중에 대형 마트에 들러 미리 주문해 둔 음식과 음료수를 찾아 ‘농촌부인의 집’에서 위로회가 개최되었다.

각 배소에서의 배례절차는 두 가지 형태로 나뉘었다. 먼저, 향을 묶음으로 향로 위에 그냥 놓고 곤편과 함께 빈시의 술을 따라 올린 다음, 일행 모두가 함께 바닥에 앉는 듯한 자세로 기원을 올리는 형태가 있다. 19곳 중 14곳의 배소에서 이와 같은 절차로 이루어졌다. 한편, 향을 피우고 새전을 바치며 곤편과 함께 빈시의 술을 따라 올린 다음, 일행 모두가 함께 바닥에 앉는 듯한 자세로 기원을 올리는 형태가 있었다. 이는 상 하에바루의 가미야, 민툰구스쿠 내 배전, 다마구스쿠 내 2개소, 다마구스쿠의 가미야 등 5곳의 배소에서 행해진 배례절차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주로 건물이 갖춰진 배소에서 향을 피우는

고다테(香立)를 하며 새전을 바친다는 주민의 설명이 있었지만, 다마구스쿠 내 2개소는 이렇다 할 건물이 갖추어져 있는 배소가 아니므로 예외인 경우라 해야 할 것이다.

5. 맺음말

류큐왕조 시대 국왕이 최고위신녀 기코에오기미 등과 함께 행했던 성지순배가 그 원형이며, 또한 현대에도 가장 대중적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아가리우마이’는 오키나와의 대표적인 성지순배라고 할 수 있다. 미네이의 ‘아가리우마이’ 사례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미네이의 ‘아가리우마이’는 각 지역에 소재하는 유명 가(井川)를 중심으로 행해졌다. 이는 마을과 연고가 있는 가를 순배하는 가우간(力御願)의 성격이 짙다고 할 수 있다. 가 참배가 많은 이유에 대해, 마을의 개척자가 길을 가다가 휴식을 취했다고 전해지는 곳을 기리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주민들의 설명이 있었다. 문중의 ‘아가리우마이’가 류큐왕부의 성지순배를 모방하여 왕권제사와 관련이 있는 성지를 주로 참배하는 것과는 달리, 미네이의 ‘아가리우마이’는 마을의 개척자 및 농경생활과 관련이 깊은 곳을 참배하는 미네이만의 ‘아가리우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미네이에서는 ‘아가리우마이’와 더불어 비록 7년에 한 번씩이기는 하지만, ‘나치진누부이’도 이루어지고 있다. 마을 내에서 선발된 수 명이 북부의 나치진까지 가는 순배를 하는 것이다. 행사를 하지 않는 해에는 나치진둔에서 북쪽을 향해 요배한다.

그러나 1982년에 편찬된 『오자토촌사 자료편』 「제사장(祭事帳)」에는 ‘아가리우마이’와 ‘나치진누부이’에 대한 기록이 없다. 다만 나치진둔에서의 요배만이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보를 한 시로마 세이키 씨를 비롯한 마을 고령자들의 기억이 동일하므로 촌사 편찬 당시의 조사에서 ‘아가리우마이’와 ‘나치진누부이’가 누락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미네이의 제사는 현재 13종류가 행해지고 있지만, 이 또한 『오자토촌사 자료편』의 기록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사의 명칭이 바뀐 경우도 있으며, 현재는 사라진 제사도 있다.

미네이의 고로들은 기억에 의한 전승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아가리우마이’에 대한 정확한 기록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금번 ‘아가리우마이’에서 상 하에바루 가미야의 경우만 해도, 원래 참배를 하는 곳이다, 아니다로 주민

들의 의견이 갈렸다. 연장자들의 기억에 의존하는 만큼 이와 같이 그 기억이 다른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가미우간 일기(神拜み日記)』 등으로 칭하며 가미우간의 성지순배 규정을 기록하는 메모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의 전거로 삼고 있는 문증이 많은 것³⁸⁾과는 대비되는 부분이다.

또한 마지막 배소 기자카는 옛날 와카미즈(若水)³⁹⁾를 뜨기도 했던 곳이었지만, 현재는 통행이 불가능해진 데다가 물까지 말라서 마른 도랑 건너편에 세워진 표지목을 향해 요배를 해야만 했다. 이처럼 개발 등으로 인한 인위적 요인과 마을주민들의 잘못된 기억이 ‘아가리우마이’의 전통을 변용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베네딕트 앤더슨에 따르면 성지순례는 일상적이고 지역적인 삶을 신성한 우주적 삶과 매개해 주는 역할을 한다. 특정지역에서 성스런 중심부로 향하는 경험에서 사람들은 일상적 삶에서 적용되는 차별적이고 계층적인 관계를 벗어나 형제애에 기초한 공동체의식을 발전시킨다는 것이다.⁴⁰⁾ 일정 주기로 행해지는 성지순배와 같은 행사가 바쁜 현대인들에게 소통의 장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미네이의 ‘아가리우마이’ 역시 마을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아가리우마이’와 같은 마을의 제사(祭事)는 외지로 나가있던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새로 편입된 구성원도 포용하며 동일한 목적으로 행동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네이의 주민들이 생각하는 ‘아가리우마이’의 가장 큰 목적은 마을 제사(祭祀)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데에 있다. 매월의 평의회와 제초작업 등과 같은 공동 작업이 잦은 미네이는 결코 부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농촌마을이다. 미네이의 주민들은 시의 행정적 지원을 받아 점차 관광상품화 되고 있는 현재의 ‘아가리우마이’와는 다른 그들만의 코스와 방식으로 ‘아가리우마이’를 행하며, 그것이 전통에 따른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그 어떤 이유나 의도를 생각함 없이 옛날부터 관습적으로 그렇게 해왔을 뿐이며, 앞으로도 계속해나갈 것이라는 주민들의 증언은 ‘아가리우마이’가 형해화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들지만, 조상을 기리고 자연에 감사하는 본질적 의미는 변함이 없다.

평민층에서 빈시, 찬합 등을 휴대하고 단체로 5, 6일을 요하는 ‘아가리우마이’나 ‘나치진누부이’ 등을 시작한 것이 메이지(明治) 시대부터라는 기존의 학설을 감안하면, 미네이 ‘아가리우마이’의 역사적 전개를 살피는 것은 앞으로 남겨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38) 小島瓔禮・谷川健一 編(2000) 『日本の神々』 白水社. p.262

39) 설날(옛날에는 입춘날) 아침 일찍 걷는 정화수로, 그 해의 액을 쫓는다고 한다.

40) 베네딕트 앤더슨 저·윤형숙 역(2002) 『상상의 공동체』 나남. p.266

【참고문헌】

- 김용의(2004) 「오кина와 다케토미지마(竹富島)지역의 우타키(御嶽)신앙」 『일본어문학』 제20집, 한국일본어문학회
- 津波高志(1998) 「沖繩의 門中과 家譜」 『조선왕조와 유구왕조의 역사와 문화 재조명』 한국오кина와학회
- 이문웅(2000) 「오кина와 ‘문츄(門中)’ 형성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관한 시론」 『비교문화연구』 6권 2호, 서울대학교비교문화연구소
- 安里進(2006) 『琉球の王權とグスク』 山川出版社
- 上江洲均(2008) 『沖繩の祭りと年中行事：沖繩民俗誌 III』 榕樹書林
- 沖繩縣大里村教育委員會(2005) 『大里村の民俗文化財』 大里村教育委員會
- 沖繩縣教育廳文化課編(1987) 『沖繩縣歷史の道調査報告書(4)』 沖繩縣教育委員會
- _____(1995) 『東御廻り等關連拜所總合調査 I』 沖繩縣教育委員會
- _____(1997) 『東御廻り等關連拜所總合調査 II』 沖繩縣教育委員會
- 沖繩縣今歸仁村教育委員會 編(2004) 『グスク文化を考える』 新人物往來社
- 大里村史編集委員會(1982) 『大里村史』 大里村役場
- 小島瓔禮(1985) 「王權の裏-聞得大君」 『歴史手帖』 13卷 10號, 名著出版
- 窪德忠(1989) 「清明日の墓參について」 『祖先祭祀』 凱風社
- JCC出版部(2011) 『琉球王國 歴史と人物』 ジェイシーシー
- 高梨一美(2009) 『沖繩の「かみんちゅ」たち』 岩田書院
- 高橋惠子(2003) 『暮らしの中の御願』 ボーダーインク
- 高良勉(2005) 『沖繩生活誌』 岩波新書
- 竹田旦(2000) 『日韓祖先祭祀の比較研究』 第一書房
- 谷川健一 編(2000) 『日本の神々』 白水社
- 鳥越憲三郎(1965) 『琉球宗教史の研究』 角川書店
- 長田昌明(2002) 『神々の伝説』 わらべ書房
- 仲松弥秀(1975) 『神と村』 伝統と現代社
- 波照間永吉 編(2007) 『琉球の歴史と文化』 角川學芸出版
- 原田敏明(1975) 『村の祭祀』 中央公論社
- 比嘉朝進(2011) 『沖繩の拜所』 球陽出版
- 比嘉政夫(1983) 「沖繩の門中と村落祭祀」 三一書房
- 福田・湧上元雄(1987) 『琉球文化と祭祀』 ひるぎ社
- 外間守善(1999) 『海を渡る神々-死と再生の原郷信仰』 角川書店
- 宮里昭也(2000) 『琉球グスク群』 琉球新報社
- 湧上元雄・大城秀子(1997) 『沖繩の聖地』 むぎ社
- 湧上元雄(2000) 『沖繩民俗文化論 祭祀・御嶽・信仰』 榕樹書林

要 旨

東御廻りは、沖縄本島とその周辺の離島に分布し、祖先のゆかりのあるグスク・井川・御嶽等の拜所を巡拝する神拝習俗のひとつである。これは琉球王朝時代、國王と聞得大君等の定例的儀禮として行われていた「東方巡拜」が、現代に至って「東御廻り」という行事に定着したものと看做されている。

東御廻りに關する先行研究は、門中次元で行われる現状把握にのみ重点が置かれているが、部落單位または一個人單位としても行われる場合があるので、より統合的な觀點の研究を加えてこそ、東御廻りの全体像をつかむことができるだろう。

2011年10月23日、嶺井の「東御廻り」は、各地域に所在する井川を中心に行われた。これは井川御願の色彩が濃厚である。琉球の王權祭事と關連する聖地を主に拝む門中の「東御廻り」とは違い、嶺井の「東御廻り」は、部落の草分及び農耕と關連する所を拝む聖地巡拜であると言えよう。ただ、1982年に編纂された『大里村史資料編』『嶺井祭事帳』に「東御廻り」の記録はない。

また、開發等による人爲的な要因と共に住民の間違った記憶は、嶺井の「東御廻り」を変容させている。しかし嶺井の住民は、市の行政的支援の下で次第に觀光商品化しつつある、現在の「東御廻り」とは違う、自分なりの方式の「東御廻り」を行い、それが村落祭事の伝統に従っているものだと信じ込んでいる。古くからの自然、ことに太陽の上がる東方崇拝の伝統は、部落單位の「東御廻り」により深く染み込んでいるようである。

キーワード：拜所、聖地巡拜、東方、東御回り、琉球、嶺井、井川、祖先

투 고 : 2011. 11. 30
1차 심사 : 2011. 12. 17
2차 심사 : 2012. 1. 7